tvN '미스터션샤인'에서 인상 깊은 연기 펼치는 김시은

"콤플렉스였던 입술 점, 날 알리는 '복점' 됐죠"

유연석 위험 빠뜨리는 귀단 역할
욕도 많이 먹지만 관심 늘어 만족
1인자 꿈 놓으니 연기가 즐거워요

tvN 토일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은 많은 배우들을 대중의 시선에 올려놓았다. 연기자 김시은(31)도 그 중 한 명이다. 귀단 역의 그는 중반부까지 등장해 극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다. 초반 순수하고 순진했던 모습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해 구동매(유연석)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짓 증언으로 욕도 먹었지만, 그 이상으로 대중의 애정 어린 관심을 얻었다.

김시은은 오디션을 통해 '미스터 션샤인'에 합류했다. 1차 오디션 때는 오직 붙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지만, 2차 오디션에서는 '떨어지더라도 아쉬움을 남기지 말자'는 생각으로 김시은이란 사람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고, 결국 배역을 따냈다.

대중에게 김시은이란 이름은 생소하지만, 그는 이미 연기인생 2막을 시작했다. 2014년 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를 시작으로 '군도:민란의 시대' '검사외전' '귀향' '아가씨' '1987' 등 굵직굵직한 영화에 조연과 단역으로 출연했다. 매체 연기를 경험하기 전에는 상명대 재학시절 서울 대학로에서 기본기를 닦았다. 비록 드라마 한 편을 통해서이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고, 연기에 임하는 마음가짐에도 변화가 생겨 스스로 기대가 높다. 연기 없는 삶을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그가 연기에 대한 애정을 조금 덜면서부터다.

"과거엔 연기가 인생의 90%였고, 연기를 빼면 인생에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 어려서 그랬는지 그때만 해도 허황된 꿈에 '1인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하! 내려놓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냉정해지면서 연기를 직업으로써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당장 주어진 오디션을 잘 보고, 불러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작품 한 작품 최선을 다하고 싶다."

지금은 김시은 인생에서 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다. 남은 50%는 '인간 김시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있다. 건강을 챙기고 장도 보며 밥을 해먹을 수 있는 너무도 평범한 일상을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김시은은 애초 연출이 하고 싶어 연극학을 전공했다. 2학년을 마치고 2년간 휴학하면서 선배들을 따라 대학로 연극에 참여하면서 연기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

"이 성격으로 바람잡이 역할도 했다"고 웃는 그는 "혼나면서 제대로 배웠다. 그때의 경험이 굉장한 자양분이 됐다"고 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연기 수업을 받기 위해 IT 기업의 안내 직원으로 2년 정도 근무하며 레슨비를 벌기도 했다.

김시은은 "원래 3개월만 하려고 했는데, 주변의 배려로 오래 다닐 수 있었다. 매달 돈이 들어오는 게 신기했다. 출퇴근 시간에 맞춰 규칙적인 삶을 살며 회사 분위기도 경험해 나중에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고 말했다.

김시은의 입술 오른쪽에는 점이 있다. 사춘기 때 친구들의 놀림에 스트레스를 받아 뺐지만 다시 생겨났다. 이제 그 점이 김시은의 존재를 각인시켜주는 강렬한 상징이 되고 있다.

"최근 한 팬이 나의 점을 보고 영화 '귀향'에 출연한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김시은은 2014년 tvN '막돼먹은 영애씨'로 데뷔해 '군도:민란의 시대' '검사외전' '귀향' '아가씨' '1987' 등 굵직굵직한 영화에서 조·단역으로 활약했다. '미스터 션샤인'은 그에게 연기인생 2막을 열어줄 작품이 될 전망이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해시태그 컷

이동국-민호 "제법 잘 어울리죠?"

프로축구 전북 현대 소속의 이동국(왼쪽)이 샤이니 멤버 민호와의 친분을 보여준다. 민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찍은 사진에서 다정함이 묻어나온다. 뒤를 밝히는 환한 불빛은 두 사람의 미소를 더욱 눈부시게 만든다. 이동국은 민호에 대해 "동네 주민 아이돌 동생 샤이니, 애어른 실물깡패, 만능 스포츠인, 운동중독"이라고 소개해 웃음을 자아낸다. 백솔미 기자

#스포츠동아 #이동국 #샤이니민호 #동네주민

'냉혹한 인질범' 현빈의 첫 악역 변신 성공적

19일 개봉하는 '협상' 첫 시사회
협상관 손예진과 수싸움 긴장감

'흥행 퀸' 손예진과 '완벽한 변신' 현빈의 조합은 성공적이었다.

배우 손예진과 현빈이 주연한 영화 '협상'(감독 이종석)이 19일 추석 연휴 극장가 관객몰이에 나서기에 앞서 10일 서울 용산 CGV에서 열린 첫 시사회에서 선보였다. 손예진의 힘과 현빈의 악역 변신에 대한 기대를 확인시키고 충족시킨 무대가 되기에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상'은 경찰 위기협상관과 국제적 무기밀매 조직의 두목이 인질을 둘러싸고 벌이는 치열한 대결을 그린 이야기. 협상관 역의 손예진과 무기밀매업자 현빈은 캐릭터상 공략과 수비의 공방을 벌이는 한편으로 여기서 배어나오는 연기와 캐릭터의 보는 맛을 더했다. 인질을 둘러싸고 서로가 수싸움을 벌인다는 기본 설정상 이들은 최대한 자신의 연기력을 끌어올려야 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영화는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힘을 얻으며 팽팽한 한판 대결의 긴장감 속에 상업영화의 보는 재미를 더했다. 여기에 현실에 얽힌 부정한 이면까지 파헤치면서 무게감까지 얹어냈다.

특히 이번 영화를 통해 처음으로 악역 연기에 도전한 현빈의 변신은 관객 사이에 회자될 만하다. 냉혹한 인질범이자 무기밀매 조직의 두목 역할을 연기하며 현빈은 이전에 드러내지 않았던 또 다른 면모로 새로움에 도전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전형적이지 않게 표현하는 방식을 생각했다. 인물을 입체적으로 연기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손예진은 역시 '손예진다운' 연기로써 눈길을 모았다. 이야기가 결말로 치달아가면서 더욱 무게감을 더하는 그는 모니터를 통한 인질 협상에 나서는 설정에 따라 "감정이 점점 올라가는데도 대사로만 주고받아야 했다.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았다"며 촬영과정의 어려움을 돌이켰다. 이런 노력으로 손예진은 자신이 그동안 멜로 감성은 물론 스릴러와 액션,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로 관객의 신뢰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재확인시켰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10일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영화 '협상' 언론시사회에 참석한 배우 현빈(왼쪽)과 손예진. 두 사람은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인다.

내마음에 작품하나

48 황보라-영화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

늘 당당한 B급 루저들 보면 나도 덩달아 자존감이 팍팍

연기자 황보라는 평소 하루 24시간을 빈틈없이 보내려 노력한다. 영화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2004)를 보고 더욱 그런 자세를 갖게 됐다.

황보라가 25세 때 처음 본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는 누가 봐도 '킹카'와는 거리가 먼 '왕따'들의 이야기이다. 외모, 행동, 인생철학 등 모든 것들이 화려하지 않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절대 창피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당하다. 자신만의 줏대로 인생을 펼쳐가는 과정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활기차다.

황보라는 "'B급 감성 루저'들의 이야기이다. 굉장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지만 주변 어딘가에 진짜로 있을 법한 사람들의 내용이다. 이들의 모습은 지질하기도 하지만 보는 내내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뛰어난 그림실력이 아니지만 자랑스러워하는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 집에서 채팅하는 걸 유일한 낙으로 삼는 나폴레옹의 형,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젊은이들과 어울려 오토바이를 타다 다친 할머니 등이 실소를 터뜨리게 한다. 그러나 하나같이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는 강단을 지녔다. 영화는 러닝타임 106분 동안 관객들을 향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라고 소리치는 것 같다.

황보라는 "각자 삶 속에서 모두가 그 안의 주인공이다. 특별한 게 없을지라도 자신의 인생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볼품없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학생회장 선거에 나선 친구를 위해 주인공이 열과 성을 다해 춤을 추는 장면은 "배꼽 잡고 쓰러졌던 기억"을 안길 만큼 강렬한 웃음과 인상을 줬다. 그가 블랙코미디 장르를 더욱 좋아하게끔 만든 결정적 장면이기도 하다. 백솔미 기자

그룹·솔로·연기…정은지의 거침없는 행보

10월 솔로 앨범 발표와 함께 콘서트
내년 개봉 '0.0MHz' 첫 스크린 도전

걸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가 솔로로 거침없는 행보를 펼친다.

어느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가수와 연기자로 동시에 나서며 솔로 '원톱'자리에 도전한다. 특히 최근 그룹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데뷔 8년차의 저력을 과시했던 그가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솔로 활동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정은지

시작은 솔로 가수. 그는 10월 미니앨범을 발표하고 팬들과 만난다. 이번 앨범은 직접 프로듀싱까지 맡아 한층 성숙해진 음악을 만나볼 수 있다.

2016년 첫 번째 솔로 음반 '드림'을 발표하며 초도물량 3만장을 완판, 추가 제작까지 들어가 여성 솔로가수로 입지를 구축했던 그는 이듬해 발표한 두 번째 미니앨범 '공간' 타이틀곡 '너란 봄' 역시 음원차트 1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정은지는 솔로콘서트도 연다. 새 앨범 발표 기념으로 마련한 콘서트는 10월 13~14일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혜화역'이라는 타이틀로 열린다.

지난해 처음 연 단독콘서트에서 아기자기한 연출로 호평 받았던 그가 이번에도 자신만의 음악적 감성과 취향을 무대에 녹여낸다.

첫 콘서트가 예매 5분 만에 2000석 전석이 매진된 만큼 11, 13일 각각 예매를 시작하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도 티켓 파워를 입증할지 관심사다.

연기에도 소홀함이 없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7',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뮤지컬 '금발이 너무해' 등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그가 이번엔 스크린에 처음 도전한다.

그는 내년 개봉예정인 공포영화 '0.0MHz'의 주연으로 발탁돼 최근 촬영을 시작했다. 영화는 초자연 미스터리 탐사동호회 회원들이 한 흉가에서 겪는 이야기로 2012년 연재된 장작 작가의 인기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김청조·김대건 기자